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신 두 환*

<目次>

- | | |
|--------------------|---------------------------|
| I. 문체의 제기 | III. 식산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
| II. 식산의 생애와 그 산수유기 | IV. 결론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식산 이만부의 『地行錄』 중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를 연구한 논문이다. 식산의 「金剛山記」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산수에 대한 표현은 아름다운 필치와 훌륭한 묘사로 창작되어 문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배어나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의 「金剛山記」는 산수유기 산문의 문예미를 엿볼 수 있는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식산의 「金剛山記」는 그 문체가 유려하고 철학적이며, 문학적이며, 역사적이고, 민족적이고 예술적인 차라리 한권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서화집이다.

누가 우리 금강산에 대하여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유람했고, 누가 우리의 산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으며, 누가 우리 산하에 대하여 이렇게 민족적이었나? 이토록 가슴이 벅차고 혈맥이 동탕하는 그러면서도 독자를 아름다움의 늪에 빠뜨려 놓는다. 조선 산수유기의 걸작 「金剛山記」는 그가 얼마나 금강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훌륭하게 묘사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기록에 나타난 문체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비유의 형상사유에는 그의 독특한 미의식이 함의 되어

* 안동대학교 국학부 한문학전공 교수 / ilovestudent@hanmail.net

있다. 그 金剛山記의 특징은 회화적이며 문체의 아름다움과 비유가 생동감이 넘치는 데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산은 곧 사람이었다. 그의 「金剛山記」 문예미학에는 묘하게도 성리학적인 형상사유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식산의 금강산 유기에 표현된 문자는 빛과 색의 움직임과 변화가 오묘하게 들어있는 회화적인 언어이다. 식산은 통속적인 금강산 유기의 도식성을 극복하고 산수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예리한 서화평론가의 필치로 금강산 절경을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식산은 서화의 창작적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미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

그가 경관을 묘사해낸 공간적 구성은 측면 부감의 수법이 들어 있고, 중심을 뚜렷이 처리한 집약적인 화면구도, 대상의 특징을 생략과 강조의 수법으로 진실하게 나타낸 섬세한 세부묘사, 수묵 담채화의 화폭을 의식한 담백한 묘사 등 그 서화 예술적 형상화는 그의 금강산 유기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다.

【주제어】 식산 이만부, 지행록, 금강산기, 문예미학, 성리학

I. 문제의 제기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예술이 아니다. 息山 李萬敷(1664-1732)의 「金剛山記」를 보았는가? 보지 않았다면 금강산 기행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모든 사물은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

이백과 소동파도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고 싶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고 했을 정도로 금강산은 문제의 산이었다. 웅장한 산수미와 기암 절경의 계곡미, 산수의 온갖 진미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산중의 산 금강산! 그 아름다움은 아직도 다 표현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역사에 금강산을 노래한 예술작품은 수도 없이 많다. 시·음악·동양화·서양화·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고금을

통하여 창작되고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금강산을 유람한 수많은 시인들과 탐승객들은 금강산의 절경을 詩歌 뿐만이 아니라 기행문 형식으로 된 산문으로도 그 감상을 남기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람기로 손꼽고 있는 것은 고려 후반 가정 이곡(1298-1351)의 「동유기」, 조선전기에는 추강 남효온(1454-1492)의 「금강산기」, 조선 중기로 오면서 16세기 율곡 이이의 「풍악행」 17세기 말 농암 김창협(1651-1708)의 「동유기」, 16세기 초 중 법종(허정, 1670-1733)의 「유금강록」, 19세기 중엽 송람 전홍관의 「금벽록」, 어당 이상수(1820-1882)의 「동행산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이 과연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의 아름다운 문체미를 능가할 수 있을까? 성호 이익은 식산 이만부의 산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유종원보다 뛰어나고 비지문은 거의 한유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¹⁾고 하여 그의 산수유기에 대한 글을 극찬하고 있다.

息山 李萬敷(1664-1732)의 일생은 당파와 성리학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남인 사림의 거장으로서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평가를 받았으며, 시·서·화로도 이름을 드날리며 일관된 삶을 살았던 은둔의 예술가였다. 그는 임란 이후 사회 변화에 동요되어 심각하게 흔들리는 성리학을 신유학적 수기치인의 입장에서 폭넓게 수용하여, 주체적으로 학문을 정립함으로서 당대 성리 학자로서 그 위치를 굳혔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조선의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토산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민족의 정통성을 위하여 국토산하를 빠짐없이 유람하고 각 지방의 자연과 풍속, 인심, 향토사적인 역사유물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피력하였으며, 국토산하에 대한 인문지리적인 지식을 정립함으로서 당대 조선의 선비로서 그 우국애민의 위상을 굳혔다.

1) 『息山先生文集附錄[上]』 「息山集跋[李敬儒]」, : 山水諸記 過於柳州 碑誌之文 殆與昌黎可上下

조선의 각 지방의 자연과 풍속, 인심, 향토사적인 역사유물 등을 빠짐 없이 열거한 이 『지행록』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아름다운 필치와 훌륭한 묘사로 우리 민족사와 국토산하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점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조명을 받았고 이런 방향으로 식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²⁾ 이러한 학문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행록』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의 연구가 방대한 자료에 비해 그 연구자가 적고, 그 연구 경향이 자료에 대한 소개와 사상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가 남긴 『지행록』을 개괄하면서 그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金剛山記」의 아름다운 산문의 문체에 천착하여 그의 미의식을 분석하고 감상하여 우리문학사에 부각시키고자 한다.

- 2)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2집, 1983.;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II)」,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4집, 1984.;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嶺南語文學』 11집, 1984.; 「息山 李萬敷의 在陳錄研究」,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총』 1984.;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察」, 『國文學研究』 10집, 1987.;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 「息山 李萬敷의 書研究」,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8.; 「息山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嶺南語文學』 15집, 1988.; 「息山 李萬敷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息山 李萬敷 文學研究」, 문창사, 1999.;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李萬敷·李瀾·丁若鏞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8.; 「『地行錄』에 나타난 息山 李萬敷의 作家意識」,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息山 李萬敷의 紀行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2집, 1998.; 朴贊善, 「息山 李萬敷의 生涯와 思想」, 영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883.; 鄭暎鎬,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성균관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4.; 조남호, 「퇴계학파의 남명학 비판-曹好益, 李玄逸, 李萬敷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第10輯, 2004.;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집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방영달·신영철, 「息山 李萬敷의 식산정사 정원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집, 2001.; 남춘우, 「息山 李萬敷의 시세계」, 계명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두환, 『남인 사림의 거장 식산 이만부』, 국학진흥원, 2007.; 「息山 李萬敷의 銘과 그 일상의 미학」, 『한문학논집』 25집, 2007.; 「息山 李萬敷의 교육사상 연구」, 『한문교육연구』 29집, 2007.;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성리학(性理學)과 문예미학(文藝美學)」, 『동방한문학연구』 제35집, 2008.

II. 식산의 생애와 그 산수유기

조선후기 영남 성리학의 파친황! 그야말로 한국 한문학사 상 흠속에 묻힌 보배 같은 조선 영조 때의 재야학자!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역학자! 퇴계학과 뒤를 이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거장!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이조판서를 지내고 판중추부사에 오른 芹谷 李觀徵의 손자요, 이조참판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博泉 李沃의 아들로 서울에서 1664년 12월 22일에 태어났다. 禮曹參判 李沃의 아들로 자는 仲舒, 호는 息山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그의 가계는 近畿南人의 명문이었다.

그의 부친 李沃은 송시열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탁남에게 몰려 북청으로 귀양 갔다. 이때가 숙종5년 무오년 1678년 이만부 나이 15세 때 부친의 귀양지를 직접 따라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이 당시 세월의 한 조각 파편인 시 한 수가 『식산집』 첫 페이지에 실려 있다. 식산은 아버지의 적소인 갑산에 가서 아버지를 뵈옵고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강을 건너면서 고초를 겪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에 그 심정을 시로 읊었다.

아버지의 적소를 떠나오며

먼 나그네 행장구려 갑산을 떠나온다.

변방의 물색은 가을이 깊었구나.

해마다 강위에 아버지와 이별한 눈물 보태니

이 한은 강물처럼 만고에 흐르리라

식산에게는 평생에 한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 시 밑에는 당시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 있다.

임술년부터 병인년까지 아버지는 이 산의 적소에 계셨다. 저는 해마다 아버

지를 뵈러 북관을 오갔다. 이 시는 을축년 8월 적소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면서 지은 것이다. 정치적으로 위에서 관리들이 어버이와 이별하는 정을 막으니 실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외로운 나머지 아버지와 끊어지려는 사랑을 못 이겨 오가니 다시 어쩔 수 있으리오. 이리하여 종이 속에 이 시를 적어서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이니 아버지는 이 시에 화답하여 시를 읊어 주었다.

떠나는 정 예로부터 세 고을을 원망하니
하물며 또 시인이 나무 떨어지는 가을에라
너가 나를 향해 혼정신성 부지런하니
성은이 십년 동안 안 흐르진 않을 꺼야
식산은 부친을 위해 눈물을 훔치며 기록하노라.

라고. 식산은 멀리 적소에 있는 아버지를 문안하기 위하여 한양에서 그 먼 길을 오갔던 모양이다. 아버지를 이별하고 떠나오는 길은 눈물로 얼룩져 있다. 이 당시부터 식산은 한양에서 북방지역을 오가며 변방에 대한 국토산하의 기행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다음의 글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³⁾

내가 소년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서 왕씨의 옛 도읍지인 개성과 단군과 기자의 옛 터인 평양을 지나 살수대첩의 유적지인 청천강을 건넜으며 비류강에 임해서는 묘향산의 숭고함을 바라보았으며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옛 땅을 보았다. 북쪽으로 나아가서는 겹겹이 쌓여있는 산맥을 밟아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옛 만주의 부족이었던 숙신과 읍루의 땅을 보았고, 아인 여진의 경계에 까지 가 보았다. 또, 남쪽으로 유람하여 마한 백제의 땅을 지나 남쪽 바다에 이르러서 영주[제주도]를 바라보았다. 다시 동남방향으로 이사하여서는 가야산을 찾고 지리산에 들어가 유람하며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다 살폈으며 또 동쪽으로 유람하여 금강산을 찾고 예맥의 땅을 따라 돌아 해 돋는 바다의 신기함을 보았고 태백 소백산맥을 휘달려 청량산 아래에서는 선현의 예악이 영향을 기친 교화의 유적지들을 답사 했으며 신라의 고도 경주에 이르러서는 신이한 유적들을 보고서 해안에 이르러 일본의 섬들을 바라보았으니 우리나라 영역은 두루 보았다.⁴⁾

3) 신두환, 『남인 사람의 거장 식산 이만부』, 한국국학진흥원, 2008. pp.1-20. 참조.

이 인용문을 보면 식산 이만부의 산수유기에 대한 범주와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숙종15년(1690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탈환하자 식산 이만부에게도 새로운 삶과 희망이 싹텄다. 부친도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조정에 복직되었으나 식산은 과거를 통한 관료의 길을 포기했다. 이때가 식산의 나이 26세였다. 그가 북방 국토의 변방에 대한 기행은 15세 때부터 26세 때까지로 약 13년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29세 때에 원주 법천으로 「산중일기」로 유명한 우담 정시한 선생을 뵈고 그해에 가야산을 유람한다. 30세에는 영남일대를 유람하였다. 31세에 안동일대를 유람했으며 안동의 서악사에 대해 시를 지은 것이 드러난다. 34세에 상주 노곡으로 이주하였다. 53세 때 동유를 하며 청량산 일대를 유람하였고 58세 때에는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 지리산을 유람하였다. 59세에는 청천 신유한으로부터 일본 유람기인 해유견문을 들었다. 1723년 60세 8월 가을에 그토록 꿈꿔왔던 금강산 일대와 관동을 유람하고 「金剛山記」를 남긴다. 그리고 61세에는 삼장동 일대를 유람하였고. 62세 때 덕유산 유람하였다. 63세 때에 동쪽으로 유람하여 경주 일대를 유람하였고, 64세 때에는 냉천, 백화산, 속리산 일대를 유람 하였으며, 66세 때에는 백운동, 부석사 등을 유람하였다. 1730년 67세 때에 이 그의 견문을 총 정리한 약 5만3천자의 방대한 『지행록』을 완성하였다. 그의 일생은 산수 유람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69세를 일기로 후사를 성호 이익에게 부탁하고 세상을 마쳤다.

식산은 우리나라 전국의 명승고적지와 명산대천을 거의 답사하고 가는 곳마다 地理誌적인 성격의 기행문과 시를 모아 4권 11록과 부록으로 편성하여 『地行錄』이라 하였다.

4)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4, 「地行附錄」, 「總敘」 “余少從先大夫 西出過王氏舊都 檀君 箕子之墟 涉澗水 臨沸流 望太白之嵩 隔淇水 觀遼野句麗, 渤海舊域 北出躡重嶠及不咸之下 觀肅慎 挹婁之地 止野人女真之境 又南遊過馬韓, 百濟之地 臨南溟望瀛洲 又東南移家 尋伽倻入方丈 窮湖嶺之界 又東遊訪蓬萊 歷獺貊之地 觀出海怪 走二白 清涼之下 訪先民禮樂遺化 新羅古都異跡 海岸望漆齒之島 於域內迨遍矣”

「지행부록」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의 나이 67세(1730년)때 쓴 것이다. 그해 가을 식산은 “병으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몸이 쇠약해지고 세상을 뜰 것 같아 죽기 전에 다시는 멀리 산수를 유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젊은 날에 산수를 유람하고 그 느낀 것을 대략 정리하여 『地行錄』 뒤에다가 붙인다.”라고 하였다. 또 “산수를 유람하고 감상하며 시를 짓고 기술해 놓은 기록들을 잃어버린 것도 있어 地誌를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쓴다.”고 그의 「지행부록」 후서에 기록하고 있다. 「지행부록」은 이런 성격의 글이라 『지행록』의 본문 글 보다는 소략하고 간단하다. 그러나 그 견문한 내용은 삼각산, 도봉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총 50편의 글들이 실려 있고, 이들 명산에 대해 그 산의 위치, 이정표, 명칭, 산천의 형세, 그 지역의 토산물, 사찰, 서원, 누정, 유명한 인물, 전설, 유물, 고적 등을 채록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직접 다녀온 사람들과 자신이 답사한 내용을 대화를 통하여 비교하고 고증하여 『지행록』을 보완한 것이지만 국토에 대한 애정이나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열정은 『地行錄』 본문과 별 차이가 없다. 그의 『地行錄』은 지행본기와 총서 지행부록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산 이만부의 『地行錄』은 조선 산수유기의 백미이다. 그 내용을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

文集卷數	地行錄目次	地行內譯
息山先生文集別集卷二	地行錄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序 • 四郡山水記 (淸風·丹陽·永春·堤川) • 詩放舟早過江和韻及五首
	地行錄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伽倻山記 淸涼山記 • 詩辭巡相舅氏及十首
	地行錄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疎野洞記, 多樂洞記, 龍遊洞記, 白雲洞記, 仙遊洞記 • 詩疎野洞及六首
	地行錄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遊(安東에서 淸涼山까지) • 淸涼山記 • 詩東遊及二十六首

文集卷數	地行錄日次	地行內譯
息山先生文集別集卷二	地行錄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遊(金陵에서 智異山까지) • 詩將遠遊大雨雪述感及八首
息山先生文集別集卷三	地行錄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東 • 金剛山記, 金剛山總記 • 又金江山記後 • 跋(李萬維書) • 詩離家及四十九首
	地行錄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智異古事附小序 三藏洞記, 藥泉記, 月影臺記, 黃溪瀑布記, 北歸記 • 詩德川轉上蠶石樓及三首
	地行錄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德裕山記, 猿鶴洞記, 花林洞記, 尋眞洞記 • 詩偶吟及十八首
	地行錄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盤龜記附跋 • 詩遊盤龜及二十首
息山先生文集別集卷四	地行錄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都雜錄附小序 • 詩利見臺及十首
	地行錄十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秋蘇說, 仙飛花說 • 冷泉記, 白華山記, 俗離山記, 少遊記 • 詩吾道峙口占及二三首
	地行附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序 • 三色道峰, 冠獄, 彌智, 天摩聖居, 五冠, 紺岳, 寶蓋, 雉獄, 清平, 寒溪, 太陰, 雪獄, 五臺, 東界, 太白, 小白, 日月, 氷山, 四弗, 主屹, 內迎, 公山, 金烏, 琵琶, 雲門, 神魚, 七點, 金井, 錦山, 無等, 曹溪, 天冠, 月出, 錦城, 邊山, 裳山, 秋月, 高德, 漢拏, 鷄龍, 扶蘇, 摩尼, 葱秀, 九月, 首陽, 錦繡, 妙香, 紇骨, 七寶, 白頭

文集卷數	地行錄目次	地行內譯
息山先生文集別集卷四	總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行錄總結 (東國史·與中國異俗·王城·地勢險易·山川風氣·物產·謠俗·江·山·嶺·樓亭·寺刹·島嶼 등)
計	二六七面 (一面,二百字) 五萬三千餘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序跋 七편, 記 二十四편, 說 二편, 錄 五十五편, 詩 一七八首

위 표)에서 보듯 식산의 『地行錄』은 거의 전국을 총망라하고 있다. 식산의 『地行錄』은 국내 기행문으로는 최대의 것이다. 삼각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전국의 명산대천은 거의 섭렵했다. 그의 산수기행은 66세까지 계속되었으며 한국의 명승고적을 빠지 않고 수록해 놓은 우리나라의 인문지리서 같은 것이다.

Ⅲ. 식산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시경에 이르기를 ‘드높은 저 하늘 밝거든 / 그대와 함께 길을 떠나세 / 드높은 저 하늘 아침이 되면 / 그대와 함께 노닐며 즐기세’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에 힘쓰지 않으랴.⁶⁾

식산은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고 들뜬 기분을 『시경』에서 찾아 그 지취를 표현하고 있다.⁷⁾ 식산의 산수기행은 거의 유교경전에서 그 뜻을

5) 권태을 선생이 『地行錄』을 해제하며 만든 것을 재인용 한 것임.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 논문 참조.
 6)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關東」 “詩云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遊行 其可不勉”
 7) 『詩經』, 「大雅·板」 “……敬天之怒 無敢戲豫 敬天之渝 無敢馳驅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遊行”

취하고 실천에 옮기며 성리학적 사유체계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그 토록 바라왔던 금강산 유람에 앞서 『시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 그의 포부를 밝혔다. 이것은 마음껏 갈고 닦은 성리학의 형상사유로 아름다운 산수를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표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1723년 60세 8월 가을에 그토록 꿈꿔왔던 금강산 일대와 관동을 유람한다. 식산은 그동안의 산수유기와 산수화에 대한 호사가로 온축된 예술적 정취를 금강산을 유람하며 마음껏 표출하여 금강산 기행의 대작 「金剛山記」를 남겼다. 그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언급을 중심으로 유추해본 그의 금강산 유람의 노정은 다음과 같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여 상산(상주)에서 짐을 꾸린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유람할 것을 권유 드디어 상주를 떠난다. → 조령을 넘어서 → 창량(충북 증원)에서 창량노인과 합류 → 省台陽(중 아이 발이 아프다고 하고, 원주는 여기서 백리길) → 학성(원주에 도착) → 추월대 → 화전현 → 창봉역 → 녹효현(홍천에 도착) → 범과정을 지나 → 수춘부(춘천에서 비를 만남) → 소양정 → 생산현 → 산양역 → 서운역 → 통구현(김화에 도착, 금강산 입구에 도착) → 단발령(금강산 유람 시작) → 장안사에 도착, 일행과 아우 만유와 합류, 행장을 정리하고 말을 돌려보내고 지팡이와 짚신으로 유람하다. → 백천동 아우를 따라온 일행 중 평릉 현감 민현은 무서워서 돌아감. 일행에서, 백족과 종자가 드러남. → 영원동 → 영원암 → 옥초대 → 현불동 → 명연 → 삼불암 → 백화암 → 표훈사 → 정양사 → 천일대 비로봉 등을 조망함 → 안양암 → 천천암 → 북정암 → 삼장암 → 기기암 → 만폭동 상팔담이 유명 → 보덕암 기둥 하나에 허공에 걸린 암자 → 마하연 → 상수점 → 묘길상 → 은선대 → 유점사 → 여러 암자를 거쳐 상산의 식산정사 집 돌아와 초가집에 누우니 꿈속에서도 혼이 날아서 금강동천으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위의 노정을 통하여 식산의 금강산기의 범위를 볼 수 있고, 그의 소회를 서술한 것에서 금강산 유람의 감동을 오랫동안 기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산은 이 금강산 유람을 마치면서 “아! 나는 젊은 시절 금강산을 한번도 유람하지 못하고 영남지방에서 유락하는 신세가 되어 질병과 근심,

가난과 슬픔 속에 바쁘게 세월만 보내면서 늙고 쇠약한 몸으로 칩거하여 분노와 근심을 풀길이 없었다. 지금 천리 길을 뛰어넘어 안개와 이슬에 젖고 산기운에 목욕하며 산수를 마음껏 즐기고 천하의 장관을 모두 관광하니 정신과 기운이 맑고 왕성하며 가슴 속이 확 트였다”⁸⁾고 금강산 유람을 술회하고 있다. 식산의 「金剛山記」에는 기행문인 산문과 기행시 49편이 들어있다.

식산은 금강산을 총괄하면서 “봉우리는 앞선 놈, 뒤선 놈, 나아가는 놈, 물러서는 놈, 정직한 놈, 빼돌어진 놈, 교묘한 놈, 중후한 놈, 쪼그리고 앉은 놈, 우뚝 선 놈, 존엄한 놈, 밝게 빛나는 놈, 빼어나고 유순한 놈, 곱고 아름다운 놈, 압전하고 아담한 놈, 훌륭하고 온화한 놈, 수양하여 사물에 오만한 놈, 뛰어 솟아 마치 걷는 듯 하는 놈, 분신하여 마치 나는 것 같은 놈, 총총걸음을 떼놓듯 하는 놈, 사납게 흘기며 마치 겁주는 듯 하는 놈, 마치 고생에 근심한 듯 하는 놈, 강개하여 탄식하는 듯한 놈”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동태를 그리듯 생동감 있게 묘사해내고 있다. 식산에게는 산은 곧 사람이었다.⁹⁾

또, “선 놈, 기댄 놈, 세로된 놈, 가로된 놈, 둥근 놈, 모난 놈, 길쭉한 놈,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놈, 우뚝 솟아 울쭉불쭉한 놈, 무더기로 된 놈, 끊어 깎아지른 놈, 굽어보고 우러르는 듯한 놈, 뛰어 잘 듯 솟구친 놈, 엮디어 호소하는 듯한 놈, 일어나 다투는 듯한 놈, 춤추듯 웃듯 노하듯 한 놈들이 돌의 形象이다. 이들을 모두 거느리고서 바라본다.”¹⁰⁾고 하여 산의 다양한 형상을 인간의 다양한 형상과 비교하면서 산의 형상을 인간

8)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9)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總記」 “峰有前者後者 進者却者 正直者欹側者 巧妙者重厚者 蹲踞者竦立者 尊而嚴者 耿著而明者 脩娉而惠者 婉婉而美者 灼約而嫺者 奇偉而自怡者 矯厲而傲物者 騰踊若去者 奮迅若飛者 蹊蹠若行者 狂顧若駭者 蹇產若憂者 忼慨若歎者”

10)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總記」 “其立者偃者 縱者橫者 圓者方者 墮者偃者 崛者磊砢者 斷齶者俯仰若者 臥顧若者跳踴聳若者 伏訴若者起鬪若者 舞若笑若怒若者 石之事也 總而觀之”

의 동태를 그려내는 화폭으로 산봉우리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식산은 식산정사를 운영하던 중에 금강산 유람을 하였으며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한 봉우리도 놓치지 않고 마치 학동들의 인성을 파악하듯 산을 인간의 심성에 연결시켜서 표현하여 더욱 더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산수 유람의 자세, 그리고 그의 생동감 넘치는 묘사의 필치에는 성리학자의 형상사유가 오묘하게 들어가 있다.

식산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을 잘 보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서 보고 물을 잘 보는 사람은 반드시 산에서 본다고 하였으나, 산수는 오히려 사람의 뼈와 피와 같아서 강하의 흐름을 봄으로 천하에 가득한 아름다운 정을 볼 수 있다.”¹¹⁾고도 하였다.

식산의 「金剛山記」에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문체의 아름다움과 비유가 생동감이 넘치는 데 있었다. 금강산을 같이 유람했던 그의 아우 이만유는 식산의 금강산 유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옛 사람이 금강산을 기록한 것이 많으나 그 산수를 꼭진하게 그 형태를 묘사해 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도 하고 놀랍게도 하여 근심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여 신귀의 변화나 음양의 여단힘으로 일만 이천 봉을 홀연 우리 옆으로 실어오게 한 것 같은 글은 식산옹의 이 기록만한 것이 없다. 훌륭하고도 장하다. **금강산 총기에 이르러 甘泉, 羽獵, 長楊 等 篇의 문장의 아름다운 문체는 마땅히 굴원의 이소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그리고 그 돌아가 머무는 바와 이 도에서 그것을 수렴하는 바 이것은 ‘인지의 락’과도 바꿀 수가 없다. 또한 공의 산을 관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만물의 아름다움 형상에 정신을 빼앗겨 그 뜻이 흘러 넘쳐서 돌아올 것을 잊어버리는 산림의 무리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종유한 적이 있지만 같은 글을 두 번 다시 중첩해서 짓지 않았다. 이것으로 산의 일경을 삼았으니 평상시 책상 사이에서 삼엄하게 옥같이 우뚝 서서 비록 길이 금강산을 대하더라도 가하다고 이를 만하다. 친 아우 해고자 만유 지국이 쓰다.¹²⁾

11)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山水形勢」.

12)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跋李萬維」 “古人之爲金剛錄者多矣 然曲悉其流峙 摸狀其形態 使人讀之 可喜可愕 可憂可樂 神鬼變化 陰陽闡

이 인용문 역시 묘사의 아름다운 필치와 넘치는 생동감을 염두에 두고 극찬한 것이다. 석산의 동생 이만유는 “**금강산 총기에 이르러 甘泉, 羽獵, 長楊 等 篇의 문장의 아름다운 문체는 마땅히 굴원의 이소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라고 하여 그의 문예미에 일찍이 주목하고 있었다. 그 주옥같은 묘사를 보자.

문왕이 사악을 순수하니 문 제후들이 옥백을 잡고 시위한 것이랄까? 삼왕이 목야에 관병할 제 제후의 서약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 할까? 춘추전국시대 때 제환공이 모든 제후를 모아 회맹하면서 피쟁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라고 할까? 공자가 행단에서 제자들에게 예를 익힐 때 삼천제자가 읊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랄까? 그것도 아니라면 또는 오나라 병사가 영읍에 들어갈 제 초나라 임금의 시체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 할까? 유방과 항우가 홍문에서 만났을 때 장백과 번쾌가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까? 밤중에 일어나 술을 마시던 항우가 사면에서 일어나는 초나라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라 할까? …중략… 설산에 꽃비가 쏟아질 때 恒河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가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있는 광경이라고 할까? 이러한 비유를 들자면 더 넓게 예를 들 수도 있으나 아무리 비유해도 금강산을 다 묘사할 수는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에 금강산의 교훈을 취하는 것만 못하니, 그 산의 편안하고도 중후함을 취하여 仁의 표본으로 삼고, 그 流動하고 達通함을 취하여 지의 표본으로 삼고, 그 험준하고 단절함이 명쾌하고 시원한 점을 취하여 의의 표본으로 삼고, 그 세밀하고도 자상하며 투철하게 밝혀진 것을 취하여 예의 표본으로 삼고 그 존엄하고도 태연함을 취하여 덕의 후한 표본으로 삼고 그 어느 곳이든 모든 광경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을 취하여 도가 두루 갖추어진 표본으로 삼고 그 빛나고 찬란함을 취하여 문장의 표본으로 삼는다면 이에 산을 유람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이다.¹³⁾

關 萬二千峰 忽若輸來於左右 無有如翁之此錄 奇乎壯哉 至其總記 文章詞彩 當上下乎離騷 甘泉 羽獵 長楊等篇 而其所歸宿 又斂之於斯道 而無替仁智之樂 亦可以知公之觀山 又非役物溢志流連忘返者比也 弟嘗從遊而不復作疊床語 以此爲山之一經 尋常几案間 森然玉立者 雖謂之長對金剛可也 家弟海阜子萬維持國 識”

13)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總記」.

식산의 아우 민유는 이 글이 이소와 비교하여 도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였다. 유산기는 보고 느낀 만큼 표현된다. 그는 식산의 산수유기를 “仁者樂山이요 知者樂水라”는 글에서 따와 ‘仁知之 樂’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그의 산수기행은 성리학의 사유방식이 바탕이 되어 그 뜻과 정취가 매우 심오하다고 할 수 있다. 식산은 문예에 타고난 천재였다. 그의 관동 「金剛山記」의 유람 중에서 뛰어난 풍경묘사 몇 편을 감상해 보자. 다음은 식산이 관동을 유람하며 추월대를 묘사한 것이다.

가을 달맞이하러 처음 추월대 위에 올라보니 큰 들판이 저 멀리까지 아련히 펼쳐져 노을과 안개가 자욱하게 뒤엉킨 것이 마치 태초에 하늘과 땅이 혼돈하여 아직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와 흡사하다가 이윽고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면서 밝고 어두운 경계가 비로소 분명하여지고, 달은 두둥실 상원봉의 머리 위에 벌써 떠올라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어두컴컴한 관문이 활짝 열리자 추월대 위에 놀던 온갖 神靈들이 모두 다 물러가고 대 위에는 털끝까지 가려낼 만큼 흰하게 밝아오는 것이었다.¹⁴⁾

한문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가? 빛과 그림자, 구름 속에 가렸던 달이 갑자기 드러나 달빛을 뿌리자 추월대에서 식산 노인의 아름다움 찾기가 시작된다.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의 빛과 그림자. 그 표현의 극치를 감상하며 식산 노인의 필치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는 미적 감수성을 타고난 천재적인 예술가였다. ‘학성(원주)은 신라북원경의 중심지이다.’라고 표현하여 유구한 고을의 역사를 읊고 우리 민족사의 역사관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난리 후에 조성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토산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府西一帶의 기슭은 가파른 절벽이 평야 끝에 솟아 府中을 위압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치악산을 바라보게

14)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關東」 “……秋邀月其上 初上原野 漠漠混沌未闢 俄而人影在地 清濁始分 月輪已上上元頭矣 須臾玄關洞開 百靈辟易 臺上毫毛可辨”

된다. 동주옹[이민구]이 관동의 안렴사가 되어 왔을 때 이곳을 ‘秋月臺’라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식산은 ‘팔월 보름날을 맞아 그곳에서 달맞이를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식산은 추석날 대보름달 아래서 치악산을 유람했던 모양이다. 다음은 소양정에서 소양호를 바라보며 표현한 한 장면이다.

정자의 난간 밖에는 돛대를 단 배들이 오르내리고 갈매기와 해오라비들이 날아오르며 모여든다. 멀리 산골에서는 산 아지랑이들이 피어나고 휘황찬란하게 어우러진 산빛을 머금고 있어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합치면서 홀연히 천만 색갈로 변화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뛰어난 경관이라 해가 빠지도록 돌아가는 것을 잊어 버렸다.¹⁵⁾

푸른 산이 머금고 있는 햇빛, 그 신비한 빛과 색의 파노라마를 회화적으로 멋 떨어지게 표현했다. 산과 호수의 정적인 이미지와 갈매기와 해오라비의 동적인 이미지의 조화와 맑고 푸른 소양호 물빛 위에 하얀 새들의 색상대비는 정경교양의 백미이다. 훌륭한 한 편의 영화배경 같은 동영상적 이미지이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산수유기는 다르게 표출된다. 다음은 통구현을 묘사한 것이다.

도령의 북쪽으로 50리를 가서 多慶津을 지나면 通溝縣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입이라고도 하였고 혹은 買伊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도령의 속현이며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문호가 된다. 이곳은 사방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였는데 이따금 그 골짜기가 솟아 오른 것은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되고 맑은 시냇물이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다. 흰 돌이 눈부시게 반짝거리며 인가는 단풍과 바위를 의지하고, 비단 같은 숲에 둘러싸여 있고, 너와집과 맨 사립문을 달고 있었는데 山田을 일구어도 금하는 사람이 없어 옥수수·콩 등이 집에 가득하였고 마을 풍속이 아주 소박하여 꾸밈새가 없고 나무꾼의 노래 소리, 소치는 아이들의 노래가 골짜기에 메아리 쳐 서로 주고받으니 이른 바 무릉도원이란 곳이 이곳과 비하여 얼마나 더 낫겠는가?¹⁶⁾

15)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關東」 “……檻外帆檣上下 鷗鷺翔集 遠岵連嵐 含輝顯氣 回合倏然 萬變旋視 俱宜竟日忘歸”

‘금강산 그들이 관동 팔 십리’라고 했던가. 식산은 금강산을 향하면서 그 경로에 아름다움을 만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 통구에서 읍은 관동의 산하 그 비단에 싸인 아름다운 산골마을의 풍경묘사는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산전을 일구고 사는 마을 사람들의 풍요로우면서도 평화로움이 넘쳐나는 산동네. 소박하고 그 꾸밈새 없는 나무꾼과 소치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치는 그 곳을 무릉도원에 비유하며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광경 앞에 식산은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여기에서 묻어나는 꾸밈없는 소박미 그것은 즐박의 미의식이었다.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높고 높은 산허리를 한 길로 감았으니
 물어몰어 찾아가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부채 같은 바위는 폐부에 와서 닿고
 흐르는 계곡물은 쉴 줄을 모르더라

골짜기를 덮는 구름 끝없이 펼쳐지고
 가을의 단풍은 바른대로 질었구나
 웅기종기 판자집은 고기비늘 같으니
 집들을 도리어 간편하게 지었구나

어찌타 모름지기 도화원을 찾으리오
 산전을 일구면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세상을 등지고 즐박을 길러길러
 우리 도를 보존하여 높이높이 걸리라¹⁷⁾

-
- 16)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關東」. “道寧北五十里 過多慶津 有通溝縣 古稱水入 或稱買伊 今爲道寧屬縣 入金剛門戶也 四峽周遭 時聳爲 秀峰 清川中貫 白石磷磷 人家依楓巖錦林 板屋白扉 菑奮無禁 黍菽滿家 謠俗 朴駭 樵歌, 牧謳響答 所謂武陵桃源 比於是何如也”
- 17)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通溝」. “巍隈纏一路 行尋別有世 巖 扇作肺腑 流液不停逝 鎖谷雲無盡 秋陰正泄泄 板屋蹙如鱗 人家却易制 何須 問花源 壘土即可蘇 養拙負清時 吾道存揭厲”

식산이 금강산 유람 중 그 시작 지점인 통구에서 지은 것이다. 이 시구의 마지막 구절 “세상을 등지고 즐박을 길러길러 / 우리 도를 보존하여 높이높이 걸리라”는 시구는 이 산수유기의 미의식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즐박 養拙! 이 용어의 심오한 미감과 그 깊이는 성리학파 관련이 있고 유래가 있는 단어이다. 주돈이는 즐박을 주제로 「拙賦」를 지었다.

누가 나에게 이르기를 ‘남들이 그대를 보고 拙하다.’고 한다. 나는 ‘巧는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있고 세상의 근심거리는 대부분 巧이다.’라고 말하고 기뻐하면서 이에 대한 賦를 지어서 말한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나 못한 척하는 사람은 말을 아니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늘 수고로우나 못한 척하는 사람은 한가로우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만 못한 척하는 사람은 덕이 있으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흉하고 못한 척하는 사람은 길하다. 아! 천하가 좋하면 정치가 두루 철저해서 상하가 편안하고 순조로워서 풍속은 맑아지고 폐단은 없어지느니라.¹⁸⁾

이것은 주자와 조선의 성리학자로 부터 추앙받던 주렴계의 글로 『명심보감』에도 選集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읽혀 오던 글이다. 또 주자는 독서를 언급하면서 “차라리 상세하게 할지언정 간략하게는 하지 말라. 차라리 아래일지언정 높이지는 말라. 차라리 즐활지언정 교하지는 말라. 차라리 가까울지언정 심원하게는 하지 말라.”¹⁹⁾고 하였다.

퇴계는 「도산잡영」에서 “비로소 내가 시내 가에 거처할 곳을 골라 집 두어 칸을 엮어매고 서책을 저장하고 즐박을 기르는 장소로 삼았다.”²⁰⁾라고 했다.

식산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통구를 지나다가 세상을 등지고 즐박을 기

18) 周敦頤, 『周元公集』 卷2, 「拙賦」 “或謂予曰 人謂子拙 予曰 巧 竊所恥也 且患世多巧也 喜而賦之曰 巧者言 拙者墨 巧者勞 拙者逸 巧者賊 拙者德 巧者凶 拙者吉 嗚呼 天下拙 刑政撤 上安下順 風清弊絕”

19) 『朱子語類』 卷10, 「讀書法」 165. “讀書 須是遍布周滿 某嘗以爲寧詳毋略 寧下毋高 寧拙毋巧 寧近毋遠”

20)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3, 「詩」, 「陶山雜永」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렴계 - 주자 - 퇴계 - 식산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형상사유와 즐박의 문예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미의식인 것이다. 드디어 식산은 금강산으로 진입하면서 단발령에서 바라보는 금강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동쪽을 향해 금강산을 바라보니 눈길 머무는 곳마다 옥 같은, 은 같은, 눈 같은, 얼음 같은 봉우리가 층층이 쌓이고 겹겹이 치솟아 하늘에 닿은 듯 그 하늘은 더 이상 동쪽이 없는 것 같았다.²¹⁾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문사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었다. 식산은 그 특유의 미감인 비유로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듯 묘사해내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스님 慧密이 손으로 하나하나 “저것은 무슨 봉이며 저것은 무슨 령이며 저것은 무슨 띠이고 저곳은 무슨 洞이라.”고 설명하기에 나는 滄浪老人을 보고 말하기를, “曾點, 漆離開같은 사람이다. 이미 대체의 뜻은 다 보았다.”라고 하였더니 蒼浪 노인도 “그렇다.”라고 하였다.²²⁾

금강산 유람의 가이드 헤밀 스님의 치밀하고 친절하한 안내를 두고, 선비 특유의 넉넉한 표현으로 증점과 칠조개에 비유한 것이다. 『논어』에서 증점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冠을 쓴 어른 5, 6명과 동자 6, 7명과 함께 나가 기수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시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는 그의 뜻을 크게 칭찬하였다는 기록을 떠올리며 비유한 것이다. 『논어』에서 비롯된 이 산수의 유람에 대한 법도는 후대 성리학자들의 산수 유람의 기틀과 연원이 되곤 하였다. 또 칠조개는 『논어』 「공야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다. 공자가 벼슬을 시켰더

21)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東向望金剛 目境所止 如玉如銀 如雪如水 層層累累及天 天無其東”

22)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上人慧密 指點某峰某嶺某岫某洞 余謂滄老曰 曾點漆離開已見大意 滄老曰 諾”

니 칠조개는 “저는 벼슬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공자가 기뻐했다고 하였다. 공자에게 칭찬을 받은 이 두 인물이 공자의 뛰어난 제자로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공자의 도를 거의 다 깨우친 것을 비유하여 스님 혜밀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곳은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감탄하는 말이다. 이에 혜밀은 “이곳은 늘 구름이 높은 산을 감싸 안고 있어 이곳에 와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을 몹시 아쉬워하였는데, 지금은 하늘과 땅이 맑게 개여 모두가 상투 같고 쪽지머리 같은 산꼭대기가 남김없이 다 나타났으니 참으로 공들이 이 산과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²³⁾라고 응수하였다. 친절한 여행 안내자 혜밀과 수준 높은 관광객의 대화를 삽입해 놓은 식산옹의 산수유기의 창작의 지혜는 예술성이 높으며 이 표현 속에서 현장감이 살아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리학적인 미의식이 함의된 유가 선비의 산수 유람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또, 남쪽에는 한 무더기의 산봉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를 시왕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 중 작은 봉우리 네다섯 개가 마치 줄지어 큰 봉우리들을 모시고 있는 듯한 것들이 있는데, 이 봉우리들에는 각각 그 모양을 다라동자, 사자, 판관, 장군 등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다. 이 푸른빛 봉우리들은 마치 여인의 귀밑머리처럼 곱게 다듬어져 숙연하도록 노란 금빛 절벽이 현란하게 눈이 부셔 오래오래 보고 있어도 도무지 싫지가 않았다. 이곳 산세는 깊고 험하여 새가 우짖거나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것도 끊어진 적막한 곳이었다. 구비구비 우리가 지나온 곳을 되돌아보니 푸르른 초록안개들만 자욱할 뿐 좁은 산길은 끊겨있는 듯, 다시 인간세계의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못할까 두렵기조차 하였다.²⁴⁾

위의 산수정경의 묘사에는 문예미가 넘친다. 그 비유와 형상의 미의식과 빛과 심리의 묘사까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장 구사력과 표현미,

23)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密曰 常有雲氣擁高處 至此望者病焉 今廓宇鮮霽 鬢髻畢露 儘知公有緣”

24)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又叢峰 當其南 有十王之號 小峰四五 若列侍 亦稱童子 使者 判官 將軍 翠鬢整儼 金壁陶爛 久看不厭 地缺窠窠 鳥噪禽翔亦絕 回俯所由來 蒼翠封而蹊徑絕 疑不可復作世間人”

식산 이만부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 회화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는 생동감 넘치는 금강산 기행의 묘사는 그의 미적 감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으며 한문산문에서도 이러한 문체의 아름다움이 유감없이 발휘 되는 점에서 또 다른 한국 한문학의 문체를 문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10여 보를 올라가니 玉焦臺가 있었는데, 세 그루의 적송과 높은 바위들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그곳에서 쉬노라니 떠날 생각이 없었다. 깃털 같은 구름이 몽롱하게 덮여 있는 봉우리가 물에 비치어 거꾸로 선 경관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사방의 봉우리들이 모여들어 한 곳에 합쳐지며 갑자기 하나의 자줏빛, 초록빛 세계를 이루었다. 또 서편으로 난 갈림길을 들어서니 작은 동구가 있었는데 이곳을 現佛洞이라 불렀으며 칩, 담쟁이덩굴 사이로 현불암이 보이고 있었다.²⁵⁾

이 현불암을 기행하면서 묘사한 아름다운 필치에는 묘하게도 빛과 그림자와 색상을 떠올리며 표현한 것은 마치 산수화의 그림을 의식한 것 같다. 식산은 그림에도 소질이 있는 천재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을 따라 깊은 곳에 이르니 물길이 소용돌이치며 새파랗게 뒤엎겨 있었는데 이곳을 ‘鳴淵’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는 마치 채 피지 않은 부용꽃과 같은 작은 봉우리와 마주 보고 있어 그 봉우리의 그림자가 물속에 거꾸로 비치고 있었다.²⁶⁾

이 맑은 물의 이미지와 산봉우리를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부용꽃에 비유하는 형상사유의 최대 미감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이 삼불암을 지나자 소나무, 회나무 사이로 ‘白華庵’이 있었는데 그 뒤를 보

25)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西上十餘步 有玉焦臺 三赤松編柯清陰 逗不肯去 輕雲蒙籠 倒景相媚 峰岵四合 庵成紫翠 觀西岐小洞曰現佛 蘿蔦間有現佛庵”

26)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水從仄處 琅琅下下 瀉洄凝碧 名曰鳴淵 前對小峰 如未開芙蓉 影倒潭中”

니 못 봉우리가 화살촉처럼 삐죽삐죽 솟아났으며 어떤 것은 온 산이 다 알몸을 드러내 보이고, 어떤 것은 반만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데 서로 부드럽고 가냘팜을 삼키고 토해 내듯 아름다운 교태를 부리며 예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漸入佳境이라 할 만하였다.

무릇 무슨 일이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보는 것이 없다. 본 바가 없으면 맛이 없고 맛이 없으면 게을러진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그 본 바가 나날이 새로워진다면 비록 그만두려고 한들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²⁷⁾

이 예술미 넘치는 문장의 아름다운 구사력 앞에서 식산 이만부가 지닌 천재적인 작가의 안목을 부각시켜내야 한다. 그 표현미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극치 그 미적 감수성의 심오한 미감 식산은 시와 함께 산문에서도 품격 넘치는 문장을 구사해내고 있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산수의 미감과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은 새로운 예술문장을 토하게 하였다.

창랑노인이 말하기를 “이 산은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질 때 흠이였으리라 생각되고 오랜 세월 비가 씻어 내려서 이렇게 큰 바위들이 드러났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천지자연의 이치와 맑고 빼어난 기운은 감추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품성 또한 그러하니 백이숙제의 청절함을 보자 아니하였습니까?”라고 했다.²⁸⁾

식산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경물에 임하면 뜻을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았다. 이택후가 말한 ‘형상을 세우면 뜻을 다하는 이유[立像以盡意]’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²⁹⁾ 식산이 산수를 유람하며 발휘한 성리학적 상상력은 더 이상 도덕적인 글만이 아니라 예술 철학의 기초였으며 미

- 27)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過三佛松檜間 有白華庵 見其後 羣峰簇簇 有全露者 有半露者 吞吐綽約 承態巧 取睨奇 可謂漸入佳境 蓋中道而廢者 無所見 無所見則無味 無味則惰 苟其見處日新 雖欲罷之 得乎”
- 28)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滄老曰 此山天地初判 想亦有土 因雨洗萬古 露此大骨 曰 造化清秀之氣 有藏不得者 人稟亦然 盍觀 夫夷齊之清乎”
- 29) 李澤厚, 『美學三書』, 安徽文藝出版社, 1999. p353.

의식이었다. 비유와 상징, 함축 등 문예미학의 문제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사람의 품성을 운운하고 백이숙제의 청절을 보고자 한 식산의 형상 사유는 무엇이 바탕이 된 것인가? 천지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품성을 연관시키려는 것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성품을 연결하려는 성리학 본연의 취지를 추구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성리학적인 형상사유의 예술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성리미학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성리학자가 아니어서 금강산의 풍경 속에 일일이 성리학적인 오묘한 이치를 넣어 중의적으로 형상화해 낼 수 있는가? 이런 심오한 표현은 문예미학의 발로이다. 식산이 유람 중에 추구하고자 한 몰아일체의 경지는 도학적 심성수양의 이상적 추구이다. 식산의 『지행록』에 나타난 산수유기의 일상은 그 성격이 다분히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서쪽으로 천일대에 오르니 열 길이 훨씬 넘는 높이였으며 아래를 굽어보니 이미 진혈대는 보이지 않고 천일대만이 우뚝하게 높이높이 홀로 솟아 있었다. 앞을 바라보니 만이천봉과 마주하여 산맥은 아득하고 구불구불 이어졌는데 가파르게 치솟아 우뚝하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하여 무섭고 놀랍고 기쁘고 사랑스러우며 공경스럽고 두려워할 만하여 폐부까지 상쾌하게 시원한 물에 씻긴 듯하였다.³⁰⁾

이 천일대를 오르며 느끼는 감수성을 보라! 한문의 표현에서 필자가 너무 아름답게 번역하고서 마치 문체의 아름다움을 너무 비약시킨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자는 원어로 한 번 읽어보라. 누구나 쉽게 이 아름다운 특이한 감동을 만나게 될지니. 우리 문학사에 이런 문체를 남긴 분은 흔하지 않다. 이 언어의 마술사 앞에 표현미에 찬사를 보낼 뿐 털끝만큼도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묘하게도 심성수양의 상쾌함을 드러내는 성리학적 형상사유의 오묘함까지. 이 문장에 함의 되어 있는 예술성을 지적해 내어 우리 문학사에 부각시켜야 함이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30)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復西上天逸臺 其高不啻十也 臺既巒嶠獨出 前對萬二千峰 逶迤綿邈 崢嶸騰突 可駭 可愕 可喜 可愛 可敬 可畏 爽沁脾肺”

오직 보이는 것은 奮然히 성난 듯 달려가 뛰어넘고 솟구치다가 형세가 합치면서 웅대한 세력을 펼치고 힘하게 높이 솟은 바위들의 장엄하고도 괴이한 형상만 보일 뿐이었다.

비로봉의 허리 아래는 단풍으로 속옷을 입고 돌 벽은 흙색 서리에 젖어 붉은 연지를 흐드러지게 바른 듯, 그 사이사이로 고송이 솟아나 울룩불룩 웅어리지고 교룡처럼 굽어 푸른 송침이 더벅머리처럼 엉켰으며 오래된 등녕굴이 무더기 채 튀어 올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자줏빛, 노란빛이 찬연히 어리어 마치 오색 비단이 수놓인 듯하였고 그 위에는 흰 바위가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듯 서로 마주보고 엮으려 맑고 희게 빛나는 것이 마치 눈이 햇빛에 비친 듯 눈이 부셨다.

그 바위들은 모두 살을 도려내고 가죽을 벗겨 맑고 투명한 뼈만 서 있었다. 갑자기 떠돌던 구름이 크게 회오리쳐 돌면서 바위에 부딪혀 하늘로 날려 올랐다가 다시 바위를 덮어씌우니 비로봉의 정수리 쪽으로 갑자기 서풍이 세차게 일어나며 은은한 소리가 생겨났다.

이 때 구름 속에 가렸던 햇빛이 구름을 밀며 찬란하게 서쪽으로 기울면서 산정을 되비치자 멀리 가까이 줄이어 선 산봉우리들이 영롱한 한 덩어리의 옥이 되는 듯하였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지국은 기뻐 말하기를, “예전 형산에 구름이 열리던 광경이 지금 이광경과 같았을까?”라고 하였다.³¹⁾

식산은 지금 화필을 휘두르고 있는 것인가? 문필을 휘두르고 있는가? 단풍 속옷을 입은 듯한 비로봉의 단풍에 취한 황홀경을 읊은 저 묘사를 보라. 앙상한 바위를 표현한 저 시리도록 와 닿는 표현을 보라. 가슴을 쥐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역사에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필치로 『金剛山記』를 남겼는가? 이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 같은 표현의 유연성은 독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감수성 넘치는 문예미를 두고 우리들은 어떻게 논리를 찾아서 그의 문예미를 부각 시켜내야 할까? 식산은 하늘이 내린 천재 작가이다. 누가 이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

31) 李萬敷, 『息山先生別集』卷3, 『地行錄6』, 『金剛山記』“但見奮迅超踔 合形鋪執 碗碗磳礪 用壯顯怪 半腰以下丹楓襯壁 洽沾霜盡意紅膩 間生古松 擁植虬屈 青針攀鬆 壽藤盆出交絡 粲粲紫黃 若錯五繡 其上惟白石相控 皓皓皚皚 刮肉剝皮 骨立瑩徹 忽有游雲 宛轉觸石 而颺覆毗盧半頂 俄而 商飈生韻 屯暈解剝 曜光西傾 返照射之 遠近列岵 盡作玉玲瓏矣 持國喜曰 衡岳開雲 古猶今乎”

할 수가 있겠는가?

산문을 들어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홀연히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고 발놀림이 가벼워지며 가슴이 더욱 상쾌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만폭동 가운데에 들어서 있었다. 활촉처럼 뽀죽한 무리지은 봉우리들로 에워싸인 영롱한 세계 안에 넓고 긴 반석들이 면면히 펼쳐져 기가 차게 깨끗하고 윤기 있는 매끄러운 물은 바위들의 이지러진 틈 사이로 굽이치며 쏟아지다가 하늘로 치솟고, 웅덩이를 이루며 갈라졌다가는 합쳐지고 합쳐졌다가 또 갈라지면서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가 진동하며 무더기로 쿵쿵 쏟아지는 것이 마치 그 힘을 자랑하듯 서로 썩씩함을 다투는 듯하였다.³²⁾

이 묘사에는 힘이 넘친다. 만폭동에 들어선 식산은 그 이미지를 산수화가가 그림을 그려내듯 문예미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즉흥적으로 묘사해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그의 풍경묘사의 문체미가 드러나는 아름답고 놀랄만한 부분은 너무도 많다. 구름과 안개, 빛 등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 밝고 강한 색감이 들어 있는 어조는 금강산의 절경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그림 같은 언어들이 주옥같이 널려있다.

식산의 금강산 유기에 표현된 문자는 빛과 색의 움직임과 변화가 오묘하게 들어있는 회화적인 언어이다. 식산은 통속적인 금강산 유기의 도식성을 극복하고 산수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예리한 서화평론가의 필치로 금강산 절경을 대하여 서화의 창작적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미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

그가 경관을 묘사해낸 공간적 구성은 측면 부감의 수법이 들어 있고, 중심을 뚜렷이 처리한 집약적인 화면구도, 대상의 특징을 생략과 강조

32)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地行錄6」, 「金剛山記」 “入門行無何 眼忽益而明 步履忽益而輕 胸襟忽益而爽然 蓋不覺入萬瀑洞中矣 叢峰簇圍瓏玲 中鋪石盤陀綿延 奇潔潤滑 水從其缺泐 曲瀉沸溜 歧而合 合而復歧 蕩射喧騰 若誇其勢競其壯者”

의 수법으로 진실하게 나타낸 섬세한 세부묘사, 수묵 담채화의 화폭을 의식한 담백한 묘사 등 그 서화 예술적 형상화는 그의 금강산 유기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다.

이 논문을 쓰면서 안타까운 것은 식산의 이 「金剛山記」에 외금강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의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으로 총석정 삼일포를 비롯한 외금강의 아름다운 묘사도 읽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식산의 『地行錄』을 읽는 동안 내내 혈맥이 동탕하고 기가 막혀 가슴을 움켜쥐는 감동을 느꼈다. 우리 역사에 이런 문인은 흔하지 않았다.

IV. 결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 한다.[仁者樂山, 知者樂水]”는 『논어』의 구절을 따서 산수유람을 ‘仁知之樂’이라고 외친 식산 이만부에게는 산이 곧 사람이었으며 사람이 곧 산이었다.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섬세하고 영롱한 필치로 실감나게 묘사한 식산의 「金剛山記」는 우리나라 산수유기의 이체이다.

식산의 금강산 유기에 표현된 문자는 빛과 색의 움직임과 변화가 오묘하게 들어있는 회화적인 언어이다. 식산은 통속적인 금강산 유기의 도식성을 극복하고 산수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예리한 서화평론가의 필치로 금강산 절경을 대하여 서화의 창작적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미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

그가 경관을 묘사해낸 공간적 구성은 측면 부감의 수법이 들어 있고, 중심을 뚜렷이 처리한 집약적인 화면구도, 대상의 특징을 생략과 강조의 수법으로 진실하게 나타낸 섬세한 세부묘사, 수묵 담채화의 화폭을 의식한 담백한 묘사 등 그 서화 예술적 형상화는 그의 금강산 유기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다.

식산의 금강산 기에는 상주를 떠나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절

경을 읊은 49수의 시가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금강산 기의 산문과 그 경물이 일치한다. 물론 그 같은 풍경을 보고 묘사한 것이어서 같은 정감의 표현이겠지만 시의 장르에 함축된 아름다움 보다는 산문이 더 예술적이다. 금강산 기행시의 감상이 「金剛山記」의 산문을 바탕으로 감상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누가 조국의 국토산하에 대하여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유람했고, 누가 우리의 산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으며, 누가 우리 산하에 대하여 이렇게 민족적이었나? 이토록 가슴이 벅차고 혈맥이 동탕하는 그러면서도 독자를 아름다움의 늪에 빠뜨려 놓는 조선 산수유기의 걸작 『지행록』! 특히 「金剛山記」는 그가 얼마나 금강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훌륭하게 묘사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식산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경물에 임하면 뜻을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았다. 이택후가 말한 ‘형상을 세우면 뜻을 다하는 이유[立像以盡意]’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식산이 산수를 유람하며 발휘한 성리학적 상상력은 더 이상 도덕적인 글만이 아니라 예술 철학의 기초였으며 미의식이었다. 식산의 「金剛山記」 비유와 상징, 함축 등 문예미학의 문제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식산 이만부의 산수유기의 문예미에는 묘하게도 성리학적 형상사유가 함의되어 있다. 『지행록』에 있는 다른 산수유기의 심도 있는 문예미 연구는 뒤를 기약한다. 우리 문학사의 산문 문체는 고문에만 몰두되어 옛 이정표만 만지고 있을 뿐 작품을 중심으로 구사된 문예미와 문체미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 작품을 중심에 두고 한문 산문의 문예미를 분석하는 연구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李萬敷, 『息山全書 1,2,3』, 여강출판사.

李萬敷, 『息山集』, 『韓國文集叢刊』 178·179, 민족문화추진회.

-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2집, 1983.
- ,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II)」,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4집, 1984.
- ,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嶺南語文學』 11집, 1984.
- , 「息山 李萬敷의 在陳錄研究」,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총』, 1984.
- ,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考察」, 『國文學研究』 10집, 1987.
- ,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
- , 「息山 李萬敷의 書研究」,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8.
- , 「息山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嶺南語文學』 15집, 1988.
- , 「息山 李萬敷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 , 『息山 李萬敷 文學研究』, 문창사, 1999.
-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李萬敷·李瀼·丁若鏞을 中心으로-」,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 「『地行錄』에 나타난 息山 李萬敷의 作家意識」,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 , 「息山 李萬敷의 紀行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2집, 1998.
- 남춘우, 「息山 李萬敷의 시세계」,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朴贊善, 「息山 李萬敷의 生涯와 思想」,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83.
- 방영달·신영철, 「息山 李萬敷의 食山정사 정원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집, 2001.
- 신두환, 『남인 사림의 거장 食山 이만부』, 국학진흥원, 2007.
- , 「息山 李萬敷의 銘과 그 일상의 미학」, 『한문학논집』 25집, 2007.
- , 「息山 李萬敷의 교육사상 연구」, 『한문교육연구』 29집, 2007.
- , 「食山(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성리학(性理學)과 문예미학(文藝美學)」, 『동방한문학연구』 제35집, 2008.
-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 鄭映鎬,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조남호, 「퇴계학파의 남명학 비판-曹好益, 李玄逸, 李萬敷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第10輯,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s travels of Mt. Geumgang / Shin Doo 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s travels of Mt. Geumgang(金剛山記) A Discussion on the Sung Confucianism(性理學) and the aesthetics of literature(文藝美學)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in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was a great scholar of Sung Confucianism who got over suffering from party dispute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He w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aspect as well as political and educational aspect. It was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How to enjoyment art and culture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This term derives from ancient chinese a philosophy.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The travels of Mt. Geumgang(금강산기) is accomplished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literary works written three hundred years ago, this is still The best of travels of Mt. Geumgang.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is a sensitive a literary man. He specialize in the philosophy of art. his travels was the graceful figure of The travels of Mt. Geumgang. In his poetry and pross be comprised in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In his poetry and pross and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 ilovestudent@hanmail.net

poetic criticism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valued the dignity and beauty of ‘The travels of Mt. Geumgang(金剛山記)’. be concerned in the philosophy of art and an Aesthetics.

【Key words】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an Aesthetics of literature, Sung Confucianism, The travels of Mt. Geumgang, the philosophy of art

투고일 : 11월 7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2일